

# 아주대학교병원소식지

발행인:李成洛 편집인:徐廷鎬 편집:아주대학교병원 홍보과 ☎219-5368

## 병원장 편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병원을 평가할 때는 그 병원이 우리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전에 지은 병원이나 또는 그 후에 계획되어 세워졌느냐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하는 모든 한국병원에 비해 우리의 병원이 새로운 개념, 구조 그리고 기능을 구비한 병원으로 한국 병원건립역사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4년 6월 1일은 새로운 병원문화가 이 땅에 시작되는 날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겁니다.

많은 꿈과 환상과 새로운 발상들이 이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삼투되어 이제 모든 것이 구체화된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우리 앞에서 있습니다. 물론 계획과 현실은 거리가 있는 법이라 짐작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용출되기도 합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현대식병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개원을 눈앞에 두고 보니 그동안 이 병원건립을 위해 밤 늦게까지 또는 주말도 마다하고 정성을 쏟아 일해주신 추진본부 직원들 생각이 납니다. 본인들이야 각자가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정열과 희생은 비록 역사의 한 모퉁이에 기록되었지 않다 하더라도 개원하는 오늘 반드시 기억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흔적이 남지도 않는 사소하고 자세한 것들을 챙기는 조그만 직분을 맡은 분들이 기억되어야 하고, 이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지면서 그 위에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큰 성과가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이름도 남기지 않고 작은 일들을 충실히 챙긴 사람들이 이 병원을 완성시킨 거인들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명실공히 한국의 병원문화를 새롭게 하는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장이 밤낮 골몰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 여러분이 우리병원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같은 마음을 모아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을까? 또 이렇게 해서 모아진 힘을 어떻게 백분 발휘시켜 병원이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병원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을 맡아 충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무시켜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힘과 정성이 모아져 환자를 위한 병원발전에 바치면서 한해 두해 지나 저희들의 세대가 가면 그 결실이 우리의 후손들 손에서 기어코 맺어질 것입니다. 한 문화는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야 이루어 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음 세대의 터전을 위해 씩 어지고 증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합시다.

李鎬榮

## 6월호

- 원내소식
- 친절교육을  
마치고
- 술령술령  
세월과 개구리
- 난의 예찬
- 병원조경공사

## 병원 진료 시작하다

- 6월1일부터

94년6월1일. 드디어 출항의 명령이 내려지고 깃발이 올랐다. 승무원 모두 시작하는 마음에 설레임과 조바심이 혼잡하게 얽혀있다. 기다린 기다림 끝에 진료가 시작된 것이다. 91년10월 29일 병원건물이 기공식을 가진 이후 지나온 만 31개월이란 시간을 돌아볼 때 언제 연면적 3만1천여평의 건물이 우뚝히 솟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십만점의 각종 의료장비와 기구가 이들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병원인력과 함께 차곡차곡 채워진 것인지. 하지만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준비 당시의 긴장감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 5월만 해도 수술실의 무영등에서부터 핵자기공명영상촬영기까지 각종 의료장비를 하나하나 착오없이 설치되게끔 하려는 작업자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돋고 원내에서 쓰이는 각종 비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선 입에 마른 침이 돌았었다. 진료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도 지난 4월2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것을 필두로 의료보험요양기관, 수탁검사실시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향정신성의약품취급 및 마약취급기관, 재활 및 물리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종양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의 외래진료부서가 진료를 시작했고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마취과 등이 외래진료와 동시에 가동됐다. 병원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3차진료기관, 지정진료실시기관, 성인병검진기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기관,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의 지정을 받아 10월의 정식개원 전까지 완전가동을 이룩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병원의 첫번째 환자는 안산에 거주하는 하응주씨(남, 70세)로 소화기내과 **李相仁**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 94년 아주대의료원 예산(안) 심의-확정

- 1,236억 4천여만원

1994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예산이 1,236억 4천여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제133차 정기 이사회를 지난 5월17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고 199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예산(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94. 3. ~ 4. 5(4분기)까지의 의과대학과 추진본부(병원)예산이 '94학년도 교비 및 기성회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제130차 이사회('94. 2. 21)에서 승인된 것과 관련 의료원 조직이 확정되고 '94. 6월1일부터 진료가 개시됨에 따라 4분기 예산을 포함한 연간 예산으로 통합하여 심의·확정했다. 의료원 예산의 특징은 전체예산구분을 병원예산과 교비예산으로 구분하였으며, 병원예산은 사립학교법, 법인세법,

병원회계준칙 등을 적용 병원회계로 편성하였고, 교비예산은 의과대학 및 의학도서관, 의학연구소, 대학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병원예산은 진료개시 첫 사업년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수입 및 원가부분은 유사한 타대학병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목표를 설정 추정하였으며, 비용 역시 기구조직 및 개원준비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부서의 예산요청금액을 참고하되 부서별 배정예산이 아닌 통합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및 대학원 예산은 의료원 조직 첫 회계년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구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대학본연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구조직의 예산요청을 반영하되 의료원 전체자금운용 현황을 참고하여 편성하였다. 의학연구소 예산은 의학연구소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학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사업예산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다.

### 金宇中회장 병원 방문

金宇中 대우그룹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5시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 본교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94학년도 1학기 부부초청강연회에서 <국제경쟁력과 세계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발표하기 위해 학교에 도착한 金회장은 전용 헬리콥터에서 병원건물이 완공되어가는 것을 보고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 방문에는 金俊燁이사장, 金孝圭총장, 李成洛의무부총장, 李鎬榮병원장등이 동행했다.

### 재단이사장 리셉션 개최

- 25일 교직원식당에서

金俊燁 대우학원이사장이 주최한 병원 교직원을 위한 리셉션이 25일 병원 교직원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리셉션에서 金俊燁이사장은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준 모든 병원 교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표하고 아주대학교병원이 아주대학교 전체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했다.

李成洛의료원장은 답사를 통해 진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두려움을 기본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주대학교 병원이 빠른 시일내에 국내에서 으뜸가는 병원으로 자리잡게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리셉션에는 재단에서 金俊燁이사장, 李奭熙이사, 李萬甲이사, 金立三이사, 崔亨煥이사, 黃宗益상무이사, 李庸俊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본교에서는 金孝圭총장, 朴敦緒교학부총장 외 교무위원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원에서는 李成洛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李鎬榮병원장, 徐廷鎬기획조정실장, 朴弼煥행정처장 등과 각 임상과 목별 주임교수 및 교원들 그리고 계장급 이상 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 입원환자 보호자 관리지침 안내

李鎬榮병원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병원환경 유지와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 병원감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5월 19일자로 입원환자 보호자 관리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에 의하면 보호자 출입증은 보호자 상주기준에 근거하여 환자 1인당 1매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증이 있는 보호자에 한하여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 상주기준은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원당일과 2일째, 수술일 포함 전후일, 산후 1일째만 상주할 수 있고, 계속적인 환자상태 관찰이 필요한 소아병동, 재활환자(마비환자), 무의식환자는 항시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퇴원을 앞둔 재활환자의 보호자와 무의식환자의 보호자는 퇴원후 환자의 사회적응과 무의식환자의 상태관찰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각각 1주와 1내지 2주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 주치의 또는 담당 수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 출입증은 입원시 원무과에서 발급하고 병실에서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수간호사의 확인을 받아 원무과에서 발급토록 했다. 수간호사는 매일 아침 상주기준에 근거하여 당일 보호자 상주가 허용된 환자의 보호자명단을 작성, 이명단을 근거로 간호사와 담당경비가 정기적인 순회를 통하여 출입증 유효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통제, 관리토록 했다. 한편 병원은 이같은 보호자 상주기준이 기존의 의료기관 이용 관행과 다른점에서 환자보호자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나 원무행정 담당자들이 병원측이 마련한 보호자 상주기준을 충분히 숙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료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작

병원의 진료시작과 함께 의료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94년 4월 30일에 교부됨으로써 의료원의 구매·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아주대학교 의료원 사업자등록상의 등록 번호 및 명의를 사용해야만 한다.

- 1. 명 의 : 아주대학교 의료원
- 2. 등록번호 : 124 - 82 - 06965
- 3. 주 소 : 경기 수원 팔달 원천 산5
- 4. 대 표 자 : 이 성 낙
- 5. 업 태 : 의 료
- 6. 종 목 : 종합병원

**전산시스템 리허설**

- 지난 5월16일 부터

병원 전산화 실제가동을 위한 리허설이 16일부터 실시됐다. 의료원 정보관리과와 대우정보시스템, 유니시스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우리병원의 전산시스템은 의사의 처방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이들 처방내용이 입력과 동시에 관련된 전부서로 연결됨으로써 처방지 없이 운영되는 병원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리허설에는 원무, 임상병리, 약제, 의무기록등 의료지원부서와 임상 각과 등이 참여했는데, 리허설 전에 정보관리과는 의사, 간호사, 관계직원 등 직접 시스템을 운용할 대상자 모두에게 3일이상 집중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전산시스템은 분산처리방식으로서 메인서버와 250여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운영되는데, 진료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고 나면 행정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임전결규칙 공포**

의료원 조직의 신속한 정립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후속 의료원 규칙 위임전결규칙의 13건이 5월중에 공포됐다. 이번에 제정·공포된 규칙은 의료원 여비지급규칙, 포상규칙, 경조금 지급규칙, 의료원 임시직원 인사규칙, 시간외 근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료원 서식관리규칙, 의료원 피복관리규칙, 의료원 직인관리규칙, 교원 이종배속제도 운영내규, 근접지역 출장자 업무처리 지침, 의료원 자산

(고정자산,부외자산)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지침, 의료원 자산 분류 지침 등이다.

**의학관 증축공사 시작**

의학관 증축공사가 지난 5월 7일부터 시작됐다. 현재 저층부만 완공되어 있는 의학관에 상층부 6개층을 증축하여 4층부터 10층까지의 상층부는 의학연구소,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로 사용될 계획이며, '95년 3월말 완공예정이다.

**근태관리 지침 시행**

李成洛의료원장은 직원의 복무와 관련해 직원근태관리 지침을 30일자로 통보했다. 통보된 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기본 근로시간을 교대근무를 요하는 직종과 야간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종은 연장근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한다는 원칙 아래 기본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하여 교대근무자가 아닌 직원의 출퇴근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12시)까지로 편성하였다. 출근부 및 타임카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각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당월 근태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출장 및 외출의 경우 출장기록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부서장의 승인후 시행하며, 출장비 신청은 1주일 단위로 종합하여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결근하는 직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휴가는 연월차 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이 있고, 경조휴가, 공가, 병가 등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휴가계와 함께 하루전에 인사과에 제출토록 했다. 계장급 이하 직원의 연장근무(시간외 및 휴일근무 포함)는 시간외 근무신청 및 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장까지의 결재를 받아 월단위로 종합하여 익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직원근태관리 지침을 참고하기를 인사과는 당부했다.

**경력간호사 예비교육 수료식**

경력간호사 예비교육 수료식이 지난 20일 병원로비 3층에서 의료지원부 주관으로 있었다. 의무부총장, 병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 진료부원장, 의료지원부장과 교육을 무사히 마친 간호사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료식에서 영예의 최우수 총장상에는 필기시험 1등을 차지한 김영미 간호사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의무부총장상에는 이운자간호사, 교육기간중 동료들의 평가에서 친절에 모범을 보인 교육생에게 주어지는 병원장상에는 이경숙, 기획조정실장상에는 오연주, 실습성적이 우수한 3명의 학생에게 수여되는 행정처장상과 진료부원장, 의료지원부장상에는 이다리, 민숙천, 서예숙간호사가 각각 차지해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어서 총장상을 차지한 김영미 간호사가 예비교육을 마치면서 느낀 소감에 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10면 참조) 수료식 후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다과회를 가졌다.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 2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사업과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병원 지하 2층 친절교육장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수원 및 인근지역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는데 이번 교육의 목적은 본원의 자원봉사자로서 기본 품위와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서, 봉사현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사회사업과는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병원에 대한 소개와 자원봉사자의 업무 및 활동안내, 의료보험, 원무행정, 환자상담요령 등이었다. 교육방법은 교재와 각 과목에 대한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1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마지막날에는 수료식 및 다과회가 있었고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수료증이 주어졌다. 이번 교육은 교육장소의 사정상 다소 불편하게 진행됐는데 자원봉사자 모두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열의를 보였다.

**병원 건강공개강좌 개최**

- 첫강좌 강사에 李鎬榮병원장

수원 및 인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병원의 건강공개강좌가 지난 5월26일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2층 친절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사회사업과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강좌는 李鎬榮병원장이 "중년의 위기 처리"라는 주제로 약90분간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약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대를 사는 중년 사회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李병원장은 중년의 나이에 겪는 변화와 부담 그리고 중년에 올 수 있는 위기의 조건 등에 관해 문제를 제시하고 이들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마음가짐, 자기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우리병원의 건강공개강좌는 사회사업과가 지난 3월 실시한 수원지역 의료이용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알고자 하는 주제들을 매월 해당 임상과의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실시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두번째로 열리는 6월 강좌는 산부인과학교실의 유희석교수가 "부인암의 조기진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원부부 초청**

- 모두 150여명 참석

의과대학 교원 및 가족들의 병원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병원발전을 기하려는 단합의 자리가 28일 개최됐다. 의료원의 교원가족 초청형식으로 이날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치뤄진 이번 행사는 150여명의 교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李成洛의료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병원장의 병원목표 및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蘇義永교수의 병원소개 및 교수 및 가족의 소개가 있었고,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의 안내로 병원내부 견학을 마친 다음 병리학교실 李基汎교수의 장녀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양의 바이올린 연주회도 가졌다

**병원 방문 줄이어**

병원 건물이 완공된 것과 관련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지난 13일 한림대 의료원에서 평촌의 병원건립준비팀 16명이 방문해서 병원시설을 둘러본 것을 비롯해 본교 교직원이 24,26,27일 병원을 방문하고 돌아갔고 28일에는 의료원 교원가족이 병원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의과대학 1회 졸업생 기념식수**

본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들이 의과대학과 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느티나무 1그루를 27일 기증했다. 李成洛의무부총장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건물 뒤쪽 화단에서 가진 식수행사에서 참석자 모두 제1회 졸업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나무가 커가듯 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대전 조외과 조준행원장 도서기증**

대전 조외과병원의 조준행원장이 평소 소장하고있던 외과 관련 학술지 758권을 아주대학교의료원 의학도서관에 지난 27일 기증했다. 기증도서는 Surg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V.38~56(1958-76), 외과학회지 V.15~44, 대한의학협회지 V.20~36(1977-93), 대한소화기병학회지 V.7~25, 가정의학회지 V.6~14(1985-93), 임상연구 V.1~3(1976-78), 한국의과학 V.5~8(1973-70), Anatomy in Surgery 등이며, 의학연구의 중요한 참고물로 이용될 것이다.

**의료원 주차장 이용**

총무과에서는 의료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하며, 20시 이후 입차는 무료로 하며, 입퇴원 및 외래환자의 경우 당일 4시간, 일반내원객은 당일 1시간, 공무수행차량 등은 당일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영안실의 경우 상가당 1차량에 대하여 무료주차가 가능하며, 문상객의 경우 4시간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무료주차 가능시간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0분에 500원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직원의 경우 총무과에 차량등록을 하고 스티커를 차량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주차비는 월10,000원으로 하고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제일은행 무인 출장소 개점**

제일은행이 6월 1일부터 본원 지하 1층에 은행이용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병원 주거래은행으로서 은행측은 이용자들에게 아래 거래내용을 참조하여 주길 당부했다(제일은행 아주대출장소 : 2291).

**자동화 기기의 거래내용**

1. 현금자동 지급기
  1. 1회 70만원 이하 15회까지 지급가능
    - 통장정리 후 다시 사용가능
    - 당행 및 타행카드 사용가능
  2. 공휴일 지급한도 30만원 이하
  3. 1회 300만원이하 15회까지 당행 및 타행 송금가능
    - 통장정리 후 다시 사용가능
    - 당행카드 소지자는 당행 및 타행 송금가능
    - 타행카드 소지자는 당행만 송금가능
4. 현금서비스 가능
  - 우량, 골드 50만원 일반카드 40만원 까지
  - 당행 및 타행 B/C카드 소지자만 이용 가능
  - 공휴일은 현금서비스 안됨
2. 수표 현금 지급기
  1. 1회 70만원 이하 15회까지 현금 및 수표 지급 가능
    - 자기앞수표는 10만원권만 발행됨
  2. 기타 계좌송금, 현금서비스는 자동지급기 기능과 동일함
3. 현금자동 입금지급기
  1. 1회 50만원 이하 15회까지 지급가능
    - 통장정리 후 사용가능
    - 당행 및 타행카드 사용가능
  2. 공휴일 지급한도 30만원 이하
  3. 1회 50만까지 입금가능
    - 현금 지폐 천원, 오천원, 만원권만 입금 가능
    - 당행카드만 이용가능
  4. 기타 계좌송금, 현금서비스 등 현금자동 지급기와 동일함
4. 통장 정리기
  1. 통장정리기 기능
    - 보통통장, 저축통장, 자유저축통장, 가계당좌, 기업자유통장, 당좌예금거래장, 새시대통장, 으뜸종합통장,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펀신탁
5. 기타사항
  1. 운영시간
    - 평 일 08:00~22:00
    - 토공휴일 08:00~20:00
  2. 타행카드 사용시간
    - 평 일 09:00~17:00
    - 토 요 일 09:30~13:30
    - 공 휴 일 사용불가

### 친절교육을 마치고 나서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하게 구는 것이다. 그러면 의료에서, 병원에서 친절의 본질은 무엇일까?

의사라면 진료의 수월성( Excellence ) 추구가 기본이 되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당한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친절의 본질일 것이다. 간호사의 경우는 병동 그리고 외래에서 의사의 진료를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업과 함께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어 치료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없애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본질을 알면서도 막상 친절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니 의료인에게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언하면 우리병원의 친절 교육시행 계획은 당연히 환자에게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이다. 아마도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이라는 예상과, 고객의 요구사항 즉 외부 영향력을 계속 받는 위기의식 속에서 병원에서 진료의 수월성 추구하고 함께 친절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병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 여기면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은 친절 전문강사진이 나흘 동안 20명의 원내 강사요원을 교육시키고 이들이 전직원을 다시 교육시키도록 했는데 첫번째 교육은 강사요원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찍은 비디오에서 얼굴표정, 눈의 깜빡거림 등 많은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진료 이외의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시작이 이러했던 탓인지 교육기간내내 강사요원들 모두가 열심히 하였고 특히 오기석교

수님의 몸에 배이신 예절, 환자에 대한 정성은 교육을 담당하신 분들까지 감탄케 하였다.

그후 우리 강사요원들은 원로 교수들까지 포함한 동료들의 8시간 교육이라는 긴 하루해를 잘 보내기 위해 의사 강사 여섯명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교육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도중 출석률은 90%를 넘었으며 피교육자들도 강의중에 열심히 따라 해주었다. 다만 수련의 그룹을 이끌때 약간 힘들기도 했는데 그 날 피교육자수가 많았으며 아마도 일부의 "개원 준비등으로 바쁘는데 친절교육까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었지만,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헌신적 봉사(service)가 몸에 배어있었다. 이미 친절이 우리병원 문화의 일부로 정착 되었음을 느꼈으며, 다른의료인들의 모범이 되어 저절로 병원 전체가 맑고 밝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병원의 친절교육은 병원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경영혁신의 제 일장 일절을 실천하는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병원 전체직원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있고,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며 직원들끼리 서로를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친절이 저절로 몸에 배 수 있으며 또 요즈음 얘기하는 업무수행과정의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관리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친절한 마음씨만이라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으며 친절하게 하는 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조작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친절 교육을 받고 나니 예절과 친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

끝으로 데모크리토스의 친절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친절한 벗의 선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친절한 마음씨 만으로서도 이미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전미선(치료방사선과 부교수)

**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 경력직**

1986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안)을 최초로 수립한 이래 수원지역의 유일한 최고 최종의 의료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이 이제 그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1994년!’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백병원과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길지는 않지만 얼마간의 간호사 경력을 쌓았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모집원서를 접수하고 이자리에 서기까지 긴 망설임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어렵게 선택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선택이기에 경력간호사 원서접수 첫날 아주대학교 병원을 바라보며 제자신을 다시금 뒤돌아 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겠다고....

짧지만 길었던 6주간의 교육과정, 처음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경력직에게 이렇게 많은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실습, 전산교육, Lab 실습 등 강의 스케줄에 맞춰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온 많은 부분들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생소하고 어렵게만 여겼던 컴퓨터와도 친근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Lab 실습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간호사들은 제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국 70여개의 병원에서 모였기에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춰서 나름대로 방식만을 고집할 수 있는 오류도 범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 “아주인”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기존의 관행속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호사 아무개가 아닌 아주대학교 병원의 간호사로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6월1일 부분개원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런것들부터 모든 아주인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이러한 마음가짐이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신의 의료장비와 완벽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는 타병원과는 차별화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아주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위해 누구나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친절과 봉사정신을 담아 내원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병원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으로서의 자리잡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환자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이 앞장서고 해야만 하는 몫입니다. 우리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간미를 보여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 간호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점점 의료의 개방화 물결이 거세게 몰아쳐 옵니다. 병원의 경쟁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지켜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고급화된 서비스, 양질의 진료를 바라는 요구에 우리는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각자 스스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막연한 직장의 의미가 아닌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삶의 의미가 스며 있는 곳입니다. 병원이 우리의 집이며, 병실 곳곳이 나의 방입니다. 환자는 우리집에 오신 손님이며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예의있는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언급한 모든 것들이 실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반드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부총장님, 병원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간호사)



## 蘭 의 禮 讚

우리나라에서의 난배양(동양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원예에 관한 문헌이나 문인화등에 난이 그려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꽤 오래전 부터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예서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강희안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는 "호남지방 연해에는 품종이 좋은 아름다운 난이 모든 산에서 난다"고 하였을 뿐, 오늘날 배양하고 있는 난의 많은 품종에 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난 배양에 있어 크게 성공을 이룩하다시피한 일본에서도 약 100년전 막부시대(幕府時代)말경 중국에서 전개 된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난 배양의 역사는 더 앞선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난 애호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꽃이나 잎 모양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째, 마냥 번식에만 주력하여 꽃이 나오면 계속 잘라 버리는 실리주의자

또 한 분류는 꽃을 음미하는 사람이다. 양화소록에 이르기를 "초봄에 꽃이 피면, 등불을 켜놓고 책상에 난분을 올려 놓으면 난의 그림자가 벽에 비쳐 글 읽는데 줄음을 쫓기도 한다. 비록 설창에 구원춘융도(九腕春融圖)를 걸지 않더라도 또한 적적하지 않다"고 하였다. 얼마나 난을 좋아하는 마음인가.

난은 옛부터 사군자중 가장 으뜸으로 꼽아 왔으며 그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간 곡선의 자태가 우아하고 아취(雅趣)가 넘치기 때문에 이를 배양해서 즐기고 있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품성이 동화되어 저절로 인격이 고상해짐을 느낀다. "방향천리(芳香千里)에 흐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난꽃은 그만큼 향기가 멀리 퍼지며 자그만한

난꽃 한송이가 온집안을 매료시키기도 한다. 이른아침, 아침잠에서 깨어 거실 가득배어 있는 난향을 맞보렴. 이순간을 위해 어린아이보다 더 몇배 정성들여 세심하고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있음이 아닌가. 물주기가 다른 어느 원예화초 보다 힘들고, 난잎은 푸르게 무성해도 온, 습도가 맞지 않으면 몇년 동안이라도 꽃을 보여주지 않는 콧대높은 지조있는 여인같아, 난을 대하면서 자못 꽃을 보기 위한 오기도 생겨난다. 원예가 취미로서 좋다고하는 것은 온집안 식구가 다함께 즐기수 있다는 점이다.

동양란의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고 자연미 그대로이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추한 모습도 없다. 난의 잎줄기는 맑고 깨끗하고 품위가 있으며 깊이가 있다. 간결 소박하여 가식이 없고 싫증이 나지도 않는다. 환경이나 관리부실에도 관대해서 좋으며 인정감이 있고, 그 독특한 침묵은 사람을 언제나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난은 또 다음과 같은 암시도 해준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거나 덤비지 말라" 서두르고 덤빈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꽃을 보기위한 온갖 정성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난은 우리들에게 인내심과 침착성을 가르쳐 준다.

난을 알게 되면 서예를 하게 된다. 묵을 갈아 난을 치면 이내마음마저 명경지수라 스트레스로 부터 마음을 평정 할 수 있어 좋다. 여느 화초보다 난의 종류가 수백종에 이르며 가격이 다소 높아 선듯 구입하기가 뭐 하지만 정령 투자가치(?)는 있다고 본다. 여름내 잘 키워 봄, 가을 분갈이때 동료, 친지에게 고가(高價)로 분양(?) 할 수 있을것이다. 자, 이제 독자님의 책상위에도 싱싱하고 손쉽게 키울수 있는 "관음소심" 1분이라도 놓고 보십이...

김홍기(인사과)

### 술렁술렁 세월과 개구리

이런 이야기는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즉 내게 아무리 단순한 경험이라도 곰곰 되씹어 보면 의외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럴듯한 말이 아닌가. 만일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이 글을 찬찬히 읽어도 좋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는다고 해도 관계없다. 어차피 글은 글일뿐이니까. 얼마전에 직접 겪은 이야기 한토막.

평소 잘 알던 서클의 여선배를 만날 자리가 있었다. 만 3년 넘게 못봤던지라 반가웠지만 그 선배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한참이나 오래간만이다, 반갑다는 얘기끝에 문득 "근데, 너 지금 뭐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내가 졸업을 안한 것이라 여긴 난 대뜸 "저, 올해 졸업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그래서 지금 뭐하냐고?" 물음이 이어졌다. 잠시 당황한 채로 난 말할 길이 "아니, 저... 실은 의사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선배 "어머, 네가 정말 의사니? 이상하다, 못믿겠다, 정말...."

뭐 대강 이런 식의 대화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떠오른 나 나름대로의 교훈을 담은 생각 몇 가지, 이를테면.

- ① 사람들이란 타인이 소비한 시간에는 무관심하다.
- ②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남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
- ③ 나이 스물 여섯에 스스로를 의사라고 불러대는 것은 좀 이상하다.
- ④ 졸업한 선배와도 자주 만나라.
- ⑤ 누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것 같다.
- ⑥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를 하고 안하고는 정말로 내 맘이다.
- ⑦ 다음날을 생각한다면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 ⑧ 그 선배는 내게 관심이 없었나?

더 말하려면 몇개 더 가능하겠지만 이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①번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라거나 다른 교훈을 가지고는 말할게 없어서가 아니다. 이유는 단지 내게 지면을 할애해준 편집자의 본래 의도와 어느만큼 맞을듯 싶어서이다.

이곳 아주대학교에서 내가 보낸 시간의 맨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입학했을 당시 88년의 학교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물론 병원과 의대건물은 있지도 않았고, 의대 뒷편 본관건물은 한참 공사중에 있던 시절이라 대략 지금의 절반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거다. 병원자리는 소나무가 뻗뻗한 야트막한 언덕과 조그만 채소밭이 드문드문 흩어져있는 채로 인근 아파트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여름이면 개구리소리에 밤잠을 설치던 곳이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곳이....

당연하지만 의과대학의 교수는 계시지도 않았다. 생물공학과와 조도현선생님을 학과장으로 모시고 1회신입생인 우리들끼리 가졌던 입학후 첫 자체 환영회에서 인천잔물 윤장운 군은 '빈대떡신사'로 화려한 데뷔를 해 일찌감치 자리매김을 하였고, 조도현선생님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나..."로 시작되는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희망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첫 MT의 기억도 새롭다. 학교하고 낮은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원천유원지에서의 금요일밤은 모닥불을 에워싼채 손에 든 반쪽짜리 초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씩 말하는 가운데 절정을 이루었다. 파장무렵 꺼져가던 모닥불안에 숨어있던 정체를 용기의 폭발사건으로 앞에 서있던 박동하군이 졸도를 한 관계로 그는 그날밤을 같이있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실려가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한편 다음날 새벽, 전날의 막걸리가 아직 힘에 겨워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아침도 거른채 초췌한 모습으로 먼저들 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늦게 일어난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앞에 두 그릇 이상씩 나온 비빔밥을 치우느라 애를 먹

었다는 뒷얘기가 있다.

비록 토막토막의 1학년시절 사건들이지만 이런 가장 오래전의 이야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 그때의 우리들 같이 주위 어디를 봐도 간섭하는 사람없고 의지할데 없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곳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자연스레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면 될까. 어쨌든 이렇게 푹푹 뭉쳐 학교안팎을 돌아다녔기에 어느샌가 의대 애들은 항상 와글와글 몰려만 다닌다는 수근거림이 있었을 정도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다.

남들은 "아니 벌써 네가 졸업을 했냐?" 라며 놀라 물을만큼 세월은 술렁술렁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되짚어 헤아려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는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만치서 '아주대학교병원'의 큼직한 간판이 현실의 존재로서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2학년 어느날, 집에 보내주냐 마냐를 놓고 정민석선생님과 살떨리는 오랄테스트를 치루던 지금의 병원터에 위치해 있던 가건물풍의 해부학실습실의 모습과 지겹게도 울어대던 개구리떼들의 소음이 먼 과거시간을 날아넘어 날아워썩다.

이제 지난날의 모습을 찾을 길 없는 병원에 학생이 아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낮선 내부, 낯선 사람들. 6년 넘게 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어도 이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될성 싶지 않을 것만 같은 새로운 환경이다. 상황이 이렇진대 걱정이 없다면 흠, 거짓말이다. 하지만 방금도 말했듯이 짧지않은 세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모두 동원해 일 열심히 하고 항상 깔끔한 인턴이 되어야지.

생각하는 건 자유라고, 혹시 누가 아나, 우연히 '종합병원' 연출자의 눈에 번쩍 띄어 전격적으로 연예계에 데뷔하는 일이 생길지도. 이렇게 된다면 아까말한 ⑥이 정말로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거

울잠을 자다 느닷없이 그위가 공사장으로 변해 봄에 나오지도 못하고 생매장의 황당함을 겪어야했던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에게 그위에서 일하며 밥벌이하는 사람중의 하나로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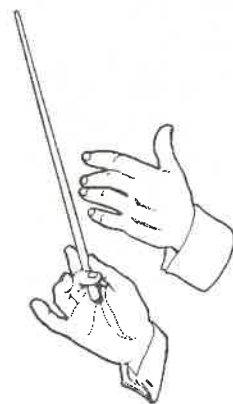
신승수(인턴)

알 권

행인이 없는 골목길을 걸을 때 큰소리로 목청껏 친신곡을 불러본적이 있는 사람. 남들이 읊치라 말들을 하지만 자신은 자신있게 하음을 잘 마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면학교 교가를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모두 ~ 모여라.

'노래를 찾는 사람들' 못지않은 노래동아리를 만들고자 하오니 노래를 사랑하는 직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마 감 익 : 1994년 6월 25일
2. 연 락 처 : 관리라 백 선 희(5377)



### 아주대학교병원 조경공사에 관하여

아주대학교병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1만여평에 이르는 병원 외부공간에 대한 조경공사 또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있다. 환자에게는 치유 및 재활공간으로서의 아늑함을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지로서의 여유로움을, 내방객에게는 격조 높은 외부공간이 줄 수 있는 신뢰감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설계된 아주대학교병원 조경공사의 핵심은 자연과의 친화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조경공사는 크게 병원 진입광장과 휴식공간으로서의 분수광장, 영안실 주변의 조경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병원을 들어오면서 맨처음 통과하게 되어있는 진입광장은 명확한 시각적 상징성을 확보하는데에 커다란 역점을 두어 설계됐다. 고풍스럽고 키가 큰 대형 소나무군을 양쪽에 입체적으로 배치한 진입부 광장의 조경은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가 병원입구로 들어서면서 첫눈에 단아한 느낌을 받게끔 만든 것이 특징. 특히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병원 입구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현관으로 오르는 계단을 청단풍을 사용해 터널식 경관 형태로 조성했다.

병원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위치하게 될 휴식공간으로서의 분수광장에는 안정된 그늘과 정결한 벤치를 마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근무자, 내방객 모두에게 심신안정의 쾌적한 소공간을 마련한다는데 설계의 기본을 두었다. 분수광장에는 2개의 분수대가 위치해 있는데 샘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형태의 소형분수의 물이 계류형태를 이루면서 흘러내려 최종적으로 중앙분수대에 이르면 중앙분수는 흐르던 물을 공중으로 산화시키는 듯한 안개분수를 보여주게 된다. 평온함 속의 시원스러움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2차 조경공사 분).

영안실 주변의 조경은 대형 낙엽송을 심음으로써 병원공간과 차폐시키면서 나뭇대로의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해 진입부로부터 조경나무의 패턴을 단순화시키고 초화목류도 흰색을 많이 선택함으로써 밝은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주변에 식재될 꽃과 나무로 자극적이기 보다는 고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흰꽃과 녹음수로서의 대형 낙엽수를 선택함으로써 휴식 우선 개념의 적극적 녹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조명이 경관의 고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간접 장식조명으로서의 구조물 매립등, 플라드등, 잔디등 등이 적극 활용된다.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해 삶의 희망적인 소생을 보여주고, 더위 아래 정결한 그늘도 마련해주며,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의 조화와 하얀 잔설이 얹혀있는 목이 긴 소나무의 청청하면서도 굴굴한 모습을 계절이 바뀔때마다 고풍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 같다.